

로스쿨 유치 무한경쟁

557억

조선대 전국 최대 투자

전국 주요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위해 모두 1천988억1천9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가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433억3천4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7월 말 현재 건축비 79억3000만원, 물품구입 1억6천700만원, 기타 352억6천400만원 등 모두 433억3천400만 원을 사용했다.

또 앞으로 건축비 118억1천600만 원, 물품구입 1억7천300만원, 기타 3억4천600만 원 등 123억3천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조선대의 투자 규모는 전국 대학 중 최고이다.

전남대는 물품구입 1천500만원, 기타 2억5천만원 등 모두 2억6천500만 원을 투입했고, 앞으로 건축비 55억 원, 물품구입 5억원, 기타 1억 원 등 61억 원을 쓸 계획이다.

/황태경기자 hwangtae@

삼가개업인사 드립니다

38년여간 돌담고 있던 광주지 방곡새청과 신하 세무서를 떠나 이번에 제가 세무사 사무실을 내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자를 지도시켜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함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감사드립니다.

2006년 8월

대표세무사 **이영규** 올림

■ 개업소일: 2006. 8. 25(목) 12시~22시까지
■ 장소: 광주역사 동 716-2번(5층) 508호
■ 대표전화: (062)233-8787

光산업진흥회 '낙하산' 논란

산자부, 상근부회장 임용 제동... 민간단체 인사개입 비난

청와대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파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공식절차를 거쳐 임용이 결정된 광산업 관련 단체 상근임원이 임원 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의 제동에 의해 2개월 넘게 임명장을 받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한국광산업진흥회 전영복 상근부회장(64)의 경우 이기태 진흥회장의 제청에 따라 지난 6월9일 제임용을 위한 이사회 서면동의를 거쳐 같은 달 16일 임원등기를 했다.

그러나 산자부가 '사전협의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진흥회의 전국화를 위해서는 합당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에 전 부회장은 지금까지 진흥회장으로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관에 따라 전 부회장을 제청한 이회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임명 결재를 미루고 해외출장중이어서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 부회장은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선임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는 정관에 따라 현재 상근부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 홍석우 미래산

업부장이 최근 광주에 내려와 전 부회장을 만나 산자부의 뜻에 따라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부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법상 인가권자인 산자부는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업무 관리감독권이 있다"면서 "광산업이 이제 기반을 구축한 만큼 향후 전국 차원의 발전을 꾀하려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이 상근부회장에 임명돼야 한다는 뜻에서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진흥회는 광기술원과 같은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라 사업자 단체인 만큼 산자부가

임원 임용에 간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흥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 전임 회장과 상근부회장에 다시 맡아달라고 제안했고 진흥회 정관에 따라 임용절차가 끝났는데 산자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회 A 이사는 "산자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면서 "민간단체 인사를 좌지우지하려는 행태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산자부가 정적권 인사를 '낙하산 인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끊임 없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무등산 '푸랭이' 나왔어요 24일 오후 무등산수박생산지조합 문봉술(64) 회장이 올해 생산된 무등산 수박(일명 푸랭이)을 들어보이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25일부터 9월말까지 금곡동 무등산 수박 공동판매장에서 판매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행성 게임장 조속 근절" 작년 출산율 1.08명... 사상 최저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

한명숙 총리는 24일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 압수 단속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조속히 퇴출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사행성 게임장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도 많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게임기 압수에 반발하거나 위장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음성적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언급, "검찰에서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확신을 갖고 철저히 수사해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상품권 환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부도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정밀 감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오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된 19개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년보다 0.08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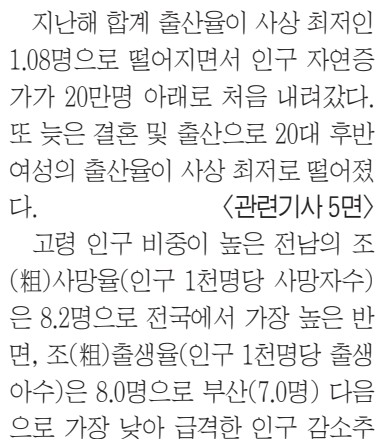
지난해 함께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자연증가가 20만명 아래로 쳐져 내려갔다. 또 늦은 결혼 및 출산으로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의 조(粗)사망율(인구 1천명당 사망자수)은 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조(粗)출생율(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은 8.0명으로 부산(7.0명) 다음으로 가장 낮아 급격한 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전년의 1.16명보다 0.08명 감소했다.

이는 부부 1쌍이 아이 1명 밖에 갖지 않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국(2.05명), 영국(1.74명), 프랑스(1.90명), 독일(1.37명)은 물론 일본의 1.25명에 비해

출생 및 사망 조출생률 및 조사망률 추이



출생아수: 636.8, 657.2, 494.8, 493.5, 476.1, 438.1
사망자수: 247.3, 242.7, 245.5, 245.8, 245.8, 245.5

사도 낮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3만8천262명으로 전년보다 3만7천990명 줄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총 사망자 수는 24만5천511명으로 전년보다 300명 감소했다.

출생아의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7.7명으로 10년 전의 113.2보다 크게 낮아져 남아 선호도가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민주당 이정일씨 의원직 상실

대법, 원심 확정 판결... 10월25일 보궐선거

민주당 이정일 의원(해남·진도)이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도청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이날로 의원직을 상

실하게 됐다. 이정일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수는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으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최진만기자 man21@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물가정보
http://www.kpi.or.kr
TEL: 1577-7300 FAX: 1577-4802

OPEN 8월 31일(목) 11시

수원신도시 중흥 S-클래스 1.418세대 분양

상우신도성과 최단 거리! 수원신도시 일구에 위치!
최고의 위치! 300~370평형 혁신실제! 4개! 최고의 환경권! 전원우늬락! 고급주택!

분양비 부담
주거비 부담
공공기관
5%

중흥 S-클래스 수원신도시

광주 최대 140만평 수원신도시의 대표 아파트!

1. 최단거리! 상우신도성과 최단 거리! 300~370평형 혁신실제! 4개! 최고의 환경권! 전원우늬락! 고급주택!

2. 최고의 위치! 300~370평형 혁신실제! 4개! 최고의 환경권! 전원우늬락! 고급주택!

3. 최고의 환경권! 전원우늬락! 고급주택!

364-0001